

홍익
07

서여대협 6,7월 활동 지침

발신 : 서여대협 중상

수신 : 각 학교 총여학생회

1. 출범식 평가, 상반기 평가를 내실있게 가져가자.

전여대협 출범식을 힘있게 준비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반성하며, 5기 한총련 출범식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와 함께 이후 방학을 어떻게 살아갈것인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각 단위에서 꼭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한 실천적 지점들을 하나씩이라도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상에서는 전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데 있어 조직적, 집단적이지 못했던 모습들을 반성하며 방중(7월 26-27일) 있게 될 전여대협 간부수련회를 서여대협이 힘있게 준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해 봅시다. 상반기 평가속에서 성과와 오류를 명확히 짚어내고 계승, 혁신의 과제를 잡아 방중과 하반기를 힘있게 살아봅시다.

2. 기지초 활동에 대해

기활추진위원회 : 명지대

동지주체 : 외대

서지주체 : 홍대

남지주체 : 숭실대

이 기활추를 중심으로 25일 서여대협 기활학교와 이후 기활 일정을 준비해 나갑시다.

3. 농활에 대해

각 지구 농활주체를 중심으로 도여농연추회의를 꼭 해내고 이를 중심으로 연대의 고리를 튼튼히 하자.(이외 내용은 문건과 PC통신에 올려진 내용을 가지고...)

실천과제....* 학교 여농주체는 반드시 세워내고 가능한한 단대 여농주체까지 세워내자.

* 여농자료를 반드시 만들어 과 농활대에 까지 배포하자

* 최근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하면서 농활 때 아동반이나 청소년반에서 성교육 일정을 잡아나가자. (예: "내몸은 내가 지켜요" 비디오 상영, 여농반에서 어린이 성교육 강좌)

* 26일 12시에 있는 전국여농학추 회의에 꼭 참여하자.

- * 농활기간 동안 연대항쟁 성추행에서 출범식때 자행된 성폭력까지 지역에 알려나가자.

3. 학내 성폭력

이는 어느 학교나 예외일 수 없으며 공통의 어려움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 차원이 아니라 여대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에 동아대 총여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폭력 학칙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해 볼 것을 고민하고 있다.

4.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 투쟁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 투쟁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 갑갑해 하는 여학일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연대항쟁 하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권의 공안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작태로서 알려나가는 투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연대항쟁이후 서총련 출범식때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학우들에게 가해진 성추행과 열사투쟁때 프락치 성폭행 사건, 한총련 출범식 당시 검문중 성추행과 동국대 여학생 성추행 및 구타사건등 일련의 사건들을 알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서총련 출범식 관련 사건 등을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해 고소투쟁으로 가져갈 계획에 있다. 그리고 여연과의 연계로 전경실명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 중상에서 논의되었다.

- 실천과제....* 연대항쟁에서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학교에서 사례조사를 반드시 하고 사례를 문서화 시킵시다. 이는 꼭 요긴하게 쓰도록 할 것입니다.
- * 방중이라 모금운동이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학교 활가들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벌여내어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활가들과의 공유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모금총화는 다음 서여대협 중상때 하여 신문광고비로 쓰일 것입니다.

5. 간부 고양 사업

학교별 학습기간을 반드시 가져가자.

서여대협 간부수련회를 7월 26일 전에 힘있게 치뤄내고 전여대협 간부수련회를 준비해 나가자.

전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50만 여학우의 조직 전여대협의 강화를 위한 수련회를 집단적, 조직적으로 준비해 나가자.

식량자급, 농축산물 제값받기 '97 전국 여름 농활 계획

수신 : 전농 각 시·군농민회, 한총련 각 대학 총학생회

발신 : 전국농민학생연대사업추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발신일 : 1997년 6월 20일

우리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올해도 전농의 93개 시·군농민회와 한총련 3만여명의 학생들이 농촌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농활은 어느때보다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농촌현장에서 학생들은 바쁜 일손도 돕고, 농민의 삶을 체험하며 농민과 함께 노동속에서 흘리는 땀은 농업의 희망, 이 나라의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전농, 전여농, 한총련이 공동주최하는 '97 전국여름농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성실히 준비하고 열심히 농활을 수행합시다.

1. 제목 : 식량자급, 농축산물제값받기 '97 전국여름농활

2. 일정 : 1997년 6월30(월)~7월8일(화) 8박 9일

※지역실정에 의해 6월 23일부터 경기도(일부), 전북(일부)이 시작함.

3. 의의

- 농촌 일손돕기
- 우리농업지키기 공감대를 범국민적으로 형성
- 하반기 식량자급과 농축산물제값받기 등 우리농업을 지키기위한 대중적 결의

4. 활동

땀흘리는 노동을 통해 농촌인손을 돕고 농민의 노동하는 건강한 삶을 체득한다.

농민과 학생의 이해를 깊게 다지며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히 일하며 연대성을 높인다.

1) 준비

- ① 각 도, 군농민학생연대사업추진위원회(이하 농학연추) 공동 명의로 농활학교, 농민학교를 개선하여 농활의 의의·노동의 중요성·자세·규율, 농업농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인다.
- ② 사전답사에서부터 내실있게 준비한다.
- ③ 근로활동계획을 기본으로 여타 분반활동, 마을잔치를 내실있게 준비한다.

2) 근로활동

- ① 근로활동은 바쁜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도와 우리농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함.
- ② 해당 지역의 작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근로에 임한다.
- ③ 근로시 농민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모르는 것은 꼭 묻는다.
- ④ 내 농사라고 생각하고 벼 한포기, 고추 한포기라도 소중히 한다.

3) 선전, 홍보

- ① 농촌일손돕기 의의
- ② 도, 군농학연추를 통해 농민·학생의 공동선전활동을 추진한다.
- ③ 여름농활에 즈음한 제반내용에 대하여 각 도별 공동기자회견·성명서를 발표한다.
- ④ 김영삼 정권 농정실패 규탄과 농정개혁 방향 제시
- ⑤ WTO이행특별법 시행! 재정과 의보통합을 위한 지역선전·홍보활동
- ⑥ 7.1 추가 수입개방과 농축산물가격폭락에 따른 농산물제값받기에 대한 요구와 농가 부채 문제 제기

- ⑦ 대선자금 공개 등 총체적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공안탄압 관련 대응 활동
- ⑧ 기타 지역현안에 대한 활동
- ⑨ 복덕동포돕기 모금운동
- ⑩ 농어촌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서명운동

1997 6월23~8월 20일 서명운동(여름농활시 집중)
 인론흥보
 여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식 진행
 7월15일 1차 수거
 8월25일 수거완료
 9월초 정국국회에 입법 청원

4) 공식적, 합법적 농활을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협력 등을 높여 농업문제의 인식확대, 우리농업지키기 의식 확대

5) 도별 상징적 국민농활 진행을 추진한다.
 전국연합, 민주노총, 의보연대회의 등 실정에 따라 단체 대표자로 구성, 진행,

6) 해단식 : 전국 동시다발 집회
 · 방향 : 농업현안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선전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선 시기 농정개혁 방향을 제시하여 부채실태 조사, 농촌고
 교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등 실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반기 활동을 준비한다.
 · 명칭 : 식량자급과 농축산물문제감받기를 위한 ○○시·군 농민대회 (또는 군민한마당)
 · 일정 : 1997. 7. 8 (화) 11시
 · 내용 : 김영삼정권의 실정과 농정실패 규탄연설, 농업개혁 방향에 대한 주장 문화행사 결합
 · 해단식 이후일정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국, 도, 군 상황실 운영
 ① 전체 농활 상황 정리
 ② 농활수행시 근로활동, 분반활동, 기본적인 규율과 안전사고에 대한 교양·점검
 ※전국 상황실 본부 : 6.23~7.8(전농 본부 사무실)

8) 안전사고 예방(특히 장마에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① 각 마을 농활대별로 규율담당자를 선정
 ② 근로작업시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③ 농활 전과정에서 개인행동은 삼가
 ④ 농기계, 오토바이 등 장비 사용 삼가
 ⑤ 오락 프로그램 진행시 물가는 되도록 피함. 물가에 갈 경우 안전지대를 정함. 익사, 심장마비 등 불의의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

※ 식량자급, 농축산물 계값받기 '97 전국여름농활 상황실 전국본부 : 전국 농민회 총연맹 본부 사무실
 전화 529-6347,9920 전송 529-6348 나누누리:전농, 천리안:NONGSA

제 목 [대학생활해 미국인 공판]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올린이 :홍익총학(김홍모) 97/06/20 12:47 읽음 : 201 관련자료 없음

오늘 아침 서초동 법원에서 홍익대학교 전과공학과 조중필학우를 살해한 재미교포와 주한미군 자녀의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온라인 시위와 많은 분의 관심으로 개보다 못한 살인마들을 한국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판은 심문만 진행되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살인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는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부인하였으며 시종일관 뻔뻔스러운 태도로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미군자녀 아더j 피터슨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에드워드 리에게 모두 전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공판은 7월 4일 2시에 있습니다.

중필이 살해범의 한국내 처벌, 미국은 신병인도를 포기하라!

우리국민 다 죽이는 주한미군 물러가라! 내정간섭 민간인 살해 미국놈들 몰아내자!

제 목 [한총련 결사대] 애송했던 시 올린이 :단국공대(이영진) 97/06/20 14:27 읽음 : 238 관련자료 없음

내가 조국을 처음 알았을 때

(한총련 구국결사대가 애송했던 시입니다.)

내가 처음 조국을 알았을 때

조국은 내게 모든 것을 버리라 했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 했네

나는 맨처음 내가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사소한 관심들을 버렸네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고 그림구경을 다니지 않게 되었고..

사소한 것을 버리고 나니까

조국은 내게 좀더 어려운 걸 버리라 했네

나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네

조국이나, 시나

죽어도 시는 못 버린다 울며 매달렸지만

조국은 내게 시를 버리라 했네

결국 나는 조국을 저버릴 수 없어

시를 버렸네

조국은 내게 사랑을 버리라 했네

고등학교 동창들을 버리고 재수할 때 학원친구들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 친구들을 버렸네, 후배도, 선배도...

그렇게 버렸네

내게 더 이상 버릴 것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나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네

청춘을 바치고 더 바칠 것이 없어

마지막 남은 목숨마저 바치려 할 때

조국은 내게 일렀네

"이제는 내가 버린 모든 것들을 찾으라"

처음 나는 책을 읽었네

그리고 나서 버렸던 사람들을 만났네

그림을 그리고 그림구경을 다녔네

시를 다시 썼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알았네

조국이 나에게 버리라고 한 이유를

이전의 책을 읽을 때와 사람을 만날 때의

그림을 그릴 때와 시를 쓸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내가 거기 있었네

조국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사소한 것을 버림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방법

조국사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길을...

(농활 자료집에 활용하면 좋겠죠?)

< 안성군농민회 성명서 >

축산농가는 모두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축산농가들은 소 한 마리당 1백만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1년을 일한 댓가는 고사하고 투자한 자본마저 다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해 대규모로 축산을 했던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큼니다. 사료값과 사육에 들어간 비용을 다주고 나면 남는 것은 몇 천만원의 빚 뿐입니다.

현재 육우의 거래 가격은 큰소 한 마리가 1백40만원입니다. 사료비 98만원 송아지 구입비 1백20만원 기타 생산비 40만원으로 인건비를 제하고도 손실액이 1백27만원이나 됩니다. 한우도 또한 손실액이 80만원이 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국에서 군 단위로는 제일 많은 소를 사육한다는 안성에서도 소 한 마리도 구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리당 백만원씩 손해보는 소를 사육할 농가도 없었지만 현재의 소값 폭락으로 몇 천만원을 손해본 농가들이 파산을 맞을 것이고 파산이 아니라도 살 자본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축산 농가들의 파산은 우리 안성지역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듯 장사가 되지 않고 거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 소값 폭락으로 본 손실은 5백억이나 됩니다. 3천 5백구가 5만여두의 소를 키우고 있는 우리 안성의 피해는 축산 농가에만 그치지 않고 있고 또한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소값은 1백만원이나 떨어졌는데 쇠고기 값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사는 소비자들은 소값이 내린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9월에 한우가 3백27만원 할 때 1만6천4백원 하던 쇠고기 값은 올 1월 한우가 2백40만원으로 27%나 떨어졌는데도 1만5천8백원으로 겨우 3% 인하되었습니다.

결국 축산 농가가 본 손해는 유통업자들이 다 챙긴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한해 동안 사료값은 30%나 인상 되었습니다. 사료값이 오르면 당연히 소값이 올라야 하는데도 소값은 떨어져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축산업은 이제 존재할 수도 없는 사업이 되 버렸습니다.

정부는 2001년까지 소값을 1백95만원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한 사육두수도 2백60만두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들의 그 큰 반대를 짓밟고 농산물 수입개방을 합의한 정부가 내놓은 수입개방 대비정책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소값과 동으로 파산을 맞아도 지난해에는 14만7천톤을 수입하였고 올해에도 16만7천톤의 쇠고기를 수입해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개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농가가 살아 있어야 축산정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 나라의 축산 농가를 다 죽이는 정부 관료가 무슨 정부 관료입니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하루 빠리 농민을 죽이는 축산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 정권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소값폭락을 막기 위해 수입쇠고기 추가 도입을 중지하고 방출 물량을 줄여야 합니다.

한우와 육우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고 수매가도 농가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유통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산지 소값이 내린 만큼 쇠고기 값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체계를 바로 잡아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과 함께 소비자들의 이익도 보장받게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지금의 저가정책과 사육두수 축소 정책을 철회하고 국내 축산 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지금과 같이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성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의 축산정책을 철회하고 농민이 살 수 있는 정책으로 축산정책이 바뀔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시위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농민 모두가 크고 작은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정부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격을 설정하고 수매하라!

한우가격 폭락 부채질하는 수입쇠고기 방출 즉각 중단하라!

사료업계는 국제곡물가격 하락분만큼 사료판매가격을 즉각 인하하라!

축산정책 자금의 원금 상환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이자율을 인하하라!

경매도살장을 확대하고 송아지 생산비 보상제도를 실시하라!

요식업소에서 원산.리를 표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라!

고통분담 농민회생 유통업자 배터진다.

살농정책 행정권을 대선에서 박살내자.

도둑맞은 오백억원 안성상권 무너진다,
 농민팔아 경제발전 더 이상은 용납못해!
 이십만원 송아지값 우리농민 다 죽인다.
 축산정책 실패한 현정권은 물러가라!
 어차피 망한신세 끝까지 투쟁하자!

농업경영인(후계자)연합회, 농민회, 안성군 4H연맹, 서울우유 축산계, 농촌지도자 연합회, 남양우유 낙우회, 한미우회, 안성우유회, 임죽 낙우회, 죽산 등낙회, 죽산 낙비회, 양성 우유회, 양성 황우회, 대덕 우유회, 금광 축심회, 원곡 낙우회 일동

연도별 쇠고기 수급전망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요량(천톤)	323	353	389	415	483	456	506
공급량 (천톤)	국내산	174	189	202	209	213	183
	수입육	149	167	187	206	225	273
	계	323	353	389	415	483	506
1인당 소비율(kg)	7.1	7.6	8.5	8.9	9.4	9.6	10.7
연간 증가율(%)	7.2	9.3	10.2	6.7	5.5	4.1	11.0
자급도(%)	53.9	53.3	51.9	50.4	48.6	40.1	36.8
인구수(천명)	45,248	45,642	46,033	46,416	46,789	47,140	47,493

1996. 농림부 축산국

정부의 연도별 목표가격 (단위 천원)

	95	96	97	98	99	00	01
큰수소	3,232	2,500	2,400	2,200	2,100	2,000	1,900
		-2,600	-2,500	-2,300	-2,200	-2,100	-2,000
수송아지	1,890	1,200	1,100	1,100	1,050	1,000	900
		-1,300	-1,200	-1,150	-1,100	-1,100	-1,000

◎ 97년 7월1일 추가 농산물 수입개방, 수입자유화율 98.7%

97년 7월1일 이후에는 생우, 쇠고기 및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모든 품목이 개방.
 이에 따라 한국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은 1994년 85.7%에서 1996년 95.5%, 1997년 98.7%로 증가함. 특히 정부는 물가안정의 이유로 농축산물 조기수입을 강행함,
 또한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아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

(97년 3월20일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 농민의 반발과 함께 국제수지적자를 확대시키고 있음(96년 농축산물 무역적자 91억달러)

- 돼지고기 의무수입량 전량(1만4천6백20t)을 97년 1~4월 중 앞당겨 수입할 뿐 아니라 수급조절용 2만톤을 2~3월중 긴급 수입할 계획이며 닭고기 역시 의무수입량 6천5백톤을 4월까지 수입할 계획임. 97년초 산지 소값이 이미 폭락하였고, 그의 농축산물 가격 파동까지 예상되어 축산농민의 불안감 가중과 파산을 촉진시키고 있음. 특히 돼지는 부위별 선호도와 가격차이가 커 유통과정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는 경쟁력이 떨어지게됨.
- 양념류의 경우 양파는 97년 1월 가격이 kg당 750에서 950원으로 오름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량 1만4천톤중 2~3월에 이미 7천6백톤을 수입함. 2월에 kg당 1천500원에 거래되던 양파도매가격 8백~9백위선으로 하락함. 이들 수입물량이 출하기를 앞두고 국내산과 경쟁되어 가격폭락이 현실화되고 있음. 마늘도 햇마늘 수확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량 9천9백66톤 중 오는 3~4월에 2천톤을 수입 할 예정임.

여름농활을 좀더 잘하기 위한 7문7답

1.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구체적으로 이석씨 사망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먼저 한총련 출범식 과정을 잘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단위에서는 어떻게 한총련 출범식을 준비했었는가를 먼저 되돌아 봅시다. 또한 한총련은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의문점을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한총련은 열사투쟁이후에 김영삼 정권의 광폭한 물리적 탄압에도 출범식만큼은 평화적으로 치르겠다고 여러번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바 있습니다. 기간 한총련 출범식 준비과정을 보면은 경찰의 원천봉쇄만 없다면 충동은 절대 없었고, 특히 4기 한총련 출범식의 경우에는 전북도지사가 나와서 축사를 할 만큼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화염병이나 쇠파이프가 필요였겠지요. 5기 한총련 출범식과정에는 그이전과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한총련 지도부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출범식이 열리는 한양대의 경우에는 경찰이 1주일 전부터 학교를 원천봉쇄하고, 1만3천 애국한양인에게 불법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한양대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등 처음부터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전국은 5월 28일부터 전국비상계엄령이 떨어지 듯 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역,터미널등은 시민들 대신 전투경찰과 사복형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근거로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 기차를 타기위해 플랫폼에 들어서는 순간 경찰은 학생들을 공격해 들어와 20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외중에 남총련 의장,조통위위원장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언론에 남총련 학생들이 열차를 새웠다고 거짓발표를 하고, 남총련학우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5월 29일부터 서울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순히 시위예정장소라고 해서 - 그것도 확실치 않은 정보를 가지고 수십개 학교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찰은 과연 합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지방에서 올라온 약 2만명의 학우들과 서총련학우들과 함께 계속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로 들어가기 위해 진입투쟁을 계속 전개했었습니다. 그외중에 1,000여명이 넘는 학우들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과정이 있었구요.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과 돌에 맞아 실명위기, 두개골 함몰등의 중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시민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은 출범식을 평화적으로 치를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고(6월 1일 고대 기자회견을 통해) 원천봉쇄를 풀어줄 것을 거듭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류지웅 상경의 죽음과 이석씨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건의 정황을 잘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범식에 참가했던 학우들은 이와 같은 상황은 다시한번 머릿속에 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이석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한총련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한총련은 자신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 조직인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네요...

사람은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정의할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활동을 합니다. 이는 곧 정치적 지향을 가진 존재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정치적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정치적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절대 제도권 정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흔히 '학생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공부나 할일이지!' 하는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이는 한국사회구조의 모순속에서 학생들의 탈정치화를 꾀하는 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지난 12년간의 초중고 교육이 바로 탈정치화를 시키는 과정이었기에, 사회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에 대학에 들어오면 새내기들은 많은 혼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려면 누구나 정치적 지향을 띠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그렇다면 한총련은 나(대학생)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한국사회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그속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한총련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약간은 정당히 평가받고 있는 전대협운동은 계승한 한총련은 청년학생의 이해와 요구(그것은 정치적 지향)를 그대로 받아안고, 이사회에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최대의 모순점인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7천만 겨레의 자주적 지향인 조국통일 앞당기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구조를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잘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속에서 검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면, 농활기간동안 농민들과 무엇을 이야기 해야 하나요.(솔직히 두렵기도 한데..)

첫번째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많은 선배님들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농활을 수행(개척)했던 사실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선배님들이 농활을 수행(개척)할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정당성때문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농민들이 이번 한총련 출범식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실겁니다. 그럴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도, 또한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전자금 전면공개' '김영삼 즉각퇴진'의 이야기를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영삼정권이 벌이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폭력 테러행위인 한총련 탄압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농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없을까요?

이번 여름농활을 통해서 농민들과 해야 할 사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패비리정권인 김영삼을 조기퇴진시켜내기 위해서 이번 여름농활을 통해 전국민적으로 김영삼 조기퇴진을 합의해야 합니다. 한총련 97여름농활 대중운동과제인 김영삼 92년 대전자금 범죄 고소고발 투쟁과 김영삼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민문제 관련해서는 전농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어촌자녀 의무교육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잘벌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있죠..

한총련 사수,강화투쟁을 자신의 생명마저 다바쳐 가며 투쟁하고 있는 소연,순옥,호준이를 위한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냈으면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한총련을 믿고 자진출두했던 세친구는 한총련 100만 청춘이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3명의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한총련 백만청춘의 혁명적 동지애로 끝까지 책임졌으면 합니다.(변호사비 마련과 영치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한총련에서 힘있게 전개할 것입니다.)

4 농업농민문제 관련해서 솔직히 잘모르거든요.. 농민들과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적이 많은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현재의 농업농민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농촌사회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농업농민문제에 대해서는 단위에서 나오는 자료를 충분히 읽고 숙지하신 다음 주위의 친구들과 많은 토론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풀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처지가 그러하기에 생활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학생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한다면 농민분들에게 실제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농민분들에게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있을 농민대회에 주위의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실천하면서 다음번 농활때는 좀더 많은 이야기를 농민들과 나눌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술에 배 부르랴?"라는 속담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5 농민들이 수입개방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요.(살기가 팍팍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수입개방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모든 문제를 미국과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고 규탄투쟁에 적극 나섰습니다. 투쟁의 결과로 소기의 성과물도 나오기도 했구요..

김영삼 집권 4년동안 쌀수매가 동결, 쌀수입- 그것도 식용쌀 수입을 하면서 민족의 생명줄인 쌀이 더이상 농민들에게 농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작목이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아직까지 농가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러면서 작목전환을 하게됩니다. 김영삼정권이 들어놓은 돈을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채소, 소사육등 돈이 될만한 것은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시절도 한두해.. 이후 작목이 집중화 되면서 연쇄적인 가격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결과 현재 농가부채는 27조원

초/대/합/니/다

'97년 대선 여성농민 정책과제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바람이 벌써 대지를 달구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에서는 오는 대통령 선거를 맞아 농업발전과 농촌복지 실현을 위하여, 농업의 담당한 주인인 여성농민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각 당이 공약화 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250만 여성농민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 1997년 6월 26일 오후 2시
- 어디 : 종로4가 종로성당 *종로3가역 (종민당앞을쪽)*
- 주최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 프로그램

- 좌장 : 박성자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소장)
- 주제발제
 1. 여성농민 정책 평가 및 방향
/ 박찬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상임부회장)
 2. 여성농민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 이영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3.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 정책과제
/ 이상덕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장)
 4. 여성농민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조옥라 (서강대 교수)
- 논찬
농촌진흥청, 농협,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야 4당
- 종합토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사) 한국여성농민연구소

97년 여름농활 이렇게 합시다.

1. '97.여름농활의 시기적 특징

- 1) 김영삼정권의 부정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김영삼정권의 통치능력이 상실된 상태 대선이 있는 해로 반신한국당, 반보수야합을 막아내고 민주적인 정권을 세워내야 함
- 2) 농민 : 농업사수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선전을 집중적으로 벌어나가는 시기.
제2의 UR에 대비한 농업정책의 수립을 요구해야 함.
- 3) 여성농민 : 여농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선전에 주력하는 시기
- 4) 학생 : 정권의 탄압에 맞서 학생회의 조직 강화와 조직의 통일·단결을 이루어 내고, 상반기 사업에 대한 총화를 하는 시기.

2. 농활의 의의

- 1) 농업사수 전선의 기본 토대 강화
- 2) 농학연대를 통한 민민운동권의 강화 및 여·농학연대를 통한 여성연대의 강화
- 3) 농활을 통한 여·농학의 조직 강화

3. 목표

- 1) 각급단위 여성농민조직 건설을 위한 토대 마련
- 2) 여·농학연추를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여·농학 연대의 강화

4. 실천과제 및 내용

- 1) 조직 : 지역 실정에 맞는 각급단위 미조직 지역의 조직건설을 위한 토대의 구축
모범 사례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2) 교육·선전 :
 - ①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여농대중의 이해를 높여낸다.
 - ② 여성농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육과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여농대중의 이해와 이의 실현을 위해 여농대중의 조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③ 여농대중에게 현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와 여농정책의 부재를 알려내고 대선에서 여성농민들의 요구가 공약화 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 3) 연대 : 각급단위 여·농학연추의 구성을 통한 연대들의 구축

5. 농활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

각급단위의 주체를 응르바로세워냄으로서 농활을 준비하고, 준비과정에서 분반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으로 본 농활이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6. 각급단위 여농·학연추위를 구성하자.

여농·학연추위는 여성농민과 학생간의 만남을 책임지는 장이다. 농활을 통해 여성농민들과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나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의 농활사업을 공유하여 농활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

아직까지 여농·학 연추위가 굳건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도·군단위에서 여농·학이 만나 서로의 농활사업을 공유하여 농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여농·학연추위 구성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오고 있다.

- 1) 각급단위 여농·학 연추위 구성과 내용
 - 가) 전국여농학연추회의

- 여성농민 : 군여성 집행부(조직이 없는 경우 개별활동가)
- 학생 : 단대별 여농반 주체

② 내용

- 농활의 목표, 방향성, 목표공유 및 결정한다.
- 군여농의 조직 상황 공유 및 집중지역의 설정한다.
- 군농학연대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군에서 집중해야 할 교육·선전·투쟁의 내용에 대한 논의, 농활 일정에 대한 논의 결정등) 한다.

③ 회의(3회)

- 1차 (5월 말)
 - 목표,의의등 공유한다.
 -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교양계획 수립한다.
 - 각 팀별 주체에 대한 점검한다.
 - 농활준비중에 서로에게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토론(농활학교 일정, 여농반운영 준비등)
- 2차 (6월 중순) : 농활시 집중해야 될 사업에 대한 내용 교양
 - 여농의 강사개발 훈련 : 학생 주체 참여 공동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자.
 - 학생들의 답사내용과 마을 상황 공유한다.
 - 농활학교 교양 일정에 대한 논의 및 역할 분담을 한다.
 - 지난해 농활사례 공유한다.
 - 농활준비 대한 점검(마을배치 집중 면·마을 선정, 일정별 프로그램 계획, 마을 순회교육일정 결정)한다.
- 3차 (7월 중순) : 여름농활에 대한 평가와 후속활동등에 대한 논의한다.
 - 농활 평가(집중지역에 대한 조직화 가능성 파악등)한다.
 - 농활이후 여농·학연대의 틀과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 여농·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후속활동의 내용과 방안을 토론한다.

라) 면·마을 농학연추회의

현재 우리의 조직 여건상 면·마을 농학연추위를 꾸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면단위에 조직이 있거나 활동가가 있는 경우 면단위 상황을 공유하고 면에서 집중해야 할 마을을 선정하여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활을 활용해 보자.

2) 각급단위 여농·학연추위가 성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 가) 여농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학생들을 추동해 냅시다. 현재 학생들은 여농주체를 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농이 적극적으로 농활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보다 철저한 농활준비를 해오도록 하자.
- 나) 여농·학 연추위 구성전에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농학연추회의에 대한 일정등을 준비하자.
- 다) 회의 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자.

7. 평가활동을 반드시 진행하자.

활동후 어떤 것을 계승하고 어떤 것을 극복할 것인가를 정확히 평가하여 다음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한다.

①평가의 주체

- 여성농민회 자체 평가
- 여농과 여농반 학생주체와의 공동평가
- 군농학연추에서의 평가

②평가의 내용

- 목표달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
- 준비,본활동 기간에 대한 평가
- 여농학 연추에 대한 평가
- 각부락 상황에 대한 점검
- 주체들의 성취감과 개인 소감

① 구성

- 여농 : 도여성농민조직의 연대사업 담당자, 전여농
- 학생 : 지구별 농학연대사업 여농주체, 전여대협

② 내용

- 현정세에 대한 공유
- 여성농민운동과 여농반 활동의 중요성 교양한다.
- 97년 여름농활의 목표설정과 계획의 수립한다.
- 97년 농활의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한다.
- 농활교양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자료집 발간한다.

③ 회의 (3회)

- 1차 (5월 말) : 농활준비에 대하여
 - 농활의 목표,의의등 공유한다.
 -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교양계획 수립한다.
 - 각 단위별 주체에 대한 점검한다.
 - 농활준비중에 서로에게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을 한다.
- 2차 (6월 중순) : 여농운에 대한 교양
 - 여성농민운동이란/여성농민운동의 현황과 과제/농활에서 집중해야할 교육·선전과제/여농반의 운영에 대하여
 - 각 학교별 교양 일정에 대한 점검을 한다.
 - 각단위별 농학연추위 구성에 대한 점검을 한다.
 - 농활준비 정도에 대한 점검을 한다.
- 3차 (7월 중) : 여름농활에 대한 평가와 후속활동등에 대한 논의
 - 농활에 대한 평가
 - 농활이후 여농·학연대의 틀과 내용을 어떻게 채울것인가에 대한 논의

나)도 여농·학 연추 회의

① 구성

- 여성농민 : 도여농 연대사업 책임자,군여농 연대사업 책임자(조직의 실무책임자),
- 학생 : 각학교별 연대사업 담당자

② 내용

- 농활의 목표,방향성,목표공유 및 결정한다.
- 도여농의 조직 상황 공유 및 집중지역의 설정한다.
- 도농학연대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도에서 집중해야할 교육·선전·투쟁의 내용에 대한 논의,농활 일정에 대한 논의 결정등) 한다.

③회의(3회)

- 1차 (5월 말)
 - 군단위 주체 만남의 장으로 농활의 목표,의의등 공유한다.
 -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교양계획 수립한다.
 - 각 단위별 주체에 대한 점검한다.
 - 농활준비중에 서로에게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토론한다.
- 2차 (6월 중순) : 농활시 집중해야될 사업에 대한 내용 교양한다.
 - 여성농민운동이란/도여농운의 현황과 과제/농활에서 집중해야할 교육·선전내용/여농반의 운영에 대하여
 - 각 학교별 교양 일정에 대한 점검 및 역할 분담한다.
 - 각군단위 농학연추위 구성에 대한 점검과 지난해 사례 공유한다.
 - 농활준비 정도에 대한 점검한다.
- 3차 (7월 중순) : 여름농활에 대한 평가와 후속활동등에 대한 논의한다.
 - 농활 평가(집중지역에 대한 조직화 가능성 파악등)한다.
 - 농활이후 여농·학연대의 틀과 내용을 어떻게 채울것인가에 대한 논의한다.

다) 군단위 여농·학 연추회의

① 구성

-평가서의 취함을 통해 내년 농활을 준비하는 근거로 삼자.

③평가의 일정

-1차 : 농활 중간에 여농 집행부와 민 또는 마을 여농반 주체들이 만나 농활 수행중 나타나는 문제점과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이후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한다.

-2차 : 농활후 각단위(여농·여학)에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공동 평가를 한다.

후속작업에 대한 계획과 이후 여농학연추를 강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도 함께 한다.

④평가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이후 농환사업의 기초가 되도록 하자. 계승성을 갖도록 하자.

8. 후속활동을 준비하자.

후속활동을 잘 하는 것은 농활의 성과를 어떻게 조직의 결과로 남기느냐하는 문제이다.농활의 과정에서 발굴된 주체인 여성농민들을 여성농민회와 조직적으로 연결시켜내고 각자의 의식을 높여내는 일이 필요하다.

① 면·군단의 단합대회나 수련회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자.

- 면·군단위로 발굴된 주체들과 여농활동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숙해 지기 위한 단합대회나 수련회를 준비해보자.

② 후속 교육 활동

- 농활후 농활지역 여성농민들을 대상으로한 자료보내기 활동을 하자.

③ 사계절 농활의 실시로 농학연대가 일상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자.

④농활후 여농운에 관심있는 학우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는 구조와 지역여농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자.

활기차고 성공적인 여름농활 수행을 위하여

김성숙

농활은 농민·학생 연대의 꽃이다.

학생들은 농민들의 삶과 투쟁을 배우고,농민은 학생들로부터 사회구조의 모순과 정치정세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배워 정치의식을 높임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변혁의 주체로,동지로 서게 된다.

농학연대란 농민과 학생이 함께 일하고, 싸우고, 배우면서 이땅의 주인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농민·학생 모두 농활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강화해 목표를 둔다.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학생들은 고생한 기억만이 남을것이고,농민들은 일손을 좀 덜고 학생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정읍여농과 한양대 총여가 처음 시작하는 이번 농활에 힘을 합하여 서로의 조직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학연대로 상호 운동의 조직적 성과를 내와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은 누구인가****

1.여성농민의 정의

여성농민은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이며 농업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농가경제의 주요 담당자이다. 그러나 여성농민에 대한 시각은 80년대까지는 단순히 농촌주부로서의

개념에 농사일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생산보조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80년 중반부터 개방농정의 가속화,농업형태의 변화등으로 농업노동에서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의 주체적 인식으로 개념적 용어인 “여성농민”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여성농민”은 농업의 보조자,주부가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 농촌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정부에서도 이제는 여성농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성농업인으로 칭하고 있다.

2.여성농민의 현실

1)여성농민은 일을 가장 많이하는 사람이다.

여성농민은 농촌인구의 51.6%, 농업노동의 48.1%,고용노동의 42.1%,품앗이의 64.8%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들과 동등한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농민이 혼자서 하고 있고, 부업도 한다.

2)농업구조개선, WTO등 외세와 자본,국가에 의해서 농민일반과 다르게 고도의 수탈을 당하고 있다.

-자본에의한 농업·농민지배,그중 절반의 여성농민은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봉건의식을 이용하여 고도의 수탈을 한다.무보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가족에 대한 사랑,봉사,여성의 본분이라는 이름아래 재생산 노동인 가사노동의 대가를 가로챈은 물론 성차별 의식을 이용하여 자본과 여농과의 관계를 호도하여 가족단위로 농민끼리 경쟁하게 하거나 부부끼리 갈등하게 만든다.

1

-자본의 이윤추구의 극대화과 욕구에 의해서 저임금구조의 유지의 기반으로 농업희생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여농을 대가없는 과중한 농업노동이나 부업으로 끌어들이 이익을 챙긴다.

-자본은 여성의 생산주체화에 따른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으려 한다.

여성농민을 생산주체가 아닌 보조자로서 격하시킴으로써 여농에 맞는 생산의 조건과 수단,인력개발비용,모성보호등 여성농민의 복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과중한 노동으로 끌어들이는다.

3.여성농민의 지위

1)농업생산에서---농업생산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함

-농업생산 수단으로부터 소외;농기계,농업생산 기반등

-농업경영권을 갖지 못함

-농업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음

2)사회참여,정치참여

-자발적이기 보다는 관,농협 등의 목적의식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동원의 대상

-제도적으로 여농의 지위보장이 안됨(농협등 이익단체 참여 못함,여성발전 기본법내에 여성농민관련 조항 거의 없음등)

-여성농민 스스로 참여하려하지 않음. 보조적 기능으로만 한정

3)가정내에서--봉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 주인으로 서지 못함

****여성농민운동은****

여성농민운동은 여성농민을 억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관습적 구조를 깨뜨려 가면서 여성농민이 반외세,반독점(자주,민주,통일)의 사회운동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다.

1. 여성농민 문제의 본질

여성문제와 농민문제가 결합되어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1) 자본주의하의 농업수탈;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에 따른 여성농민의 과중한 노동과 수탈.

2) 가부장제하의 성차별;

여성농민의 생존권확보와 참인간화 실현을 위한 요구와 저항은 지배세력의 남녀 분리지배로 인해 구조적인 모순과 직접 대결을 막고있다.(적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차단)

3) 정부의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정책의 부재;

여성농민을 생산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

농업생산의 전문인력으로 서지 못함

4) 여성농민 스스로의 정체성 낮음

2.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내용

1) 방향;

-여성농민을 억압하는 제 세력과 낡은 사상과의 싸움

-여성농민이 한인간으로써 자주성의 회복과 고양, 자기 주권의 획득 과정을 통해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는 것

2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총량을 높이고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올바르게 복무하는 것

2) 내용;

-여성농민의 생산주체화를 통해 농업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여성농민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지위 향상

3. 여성농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1) 여성농민운동의 전개과정;

-1977. 카농 여성부로 출발, 80년대초 농민권의 실현투쟁에 부분적 참여

-80년대 후반 농운의 대중화시기 수세, 고추, 소싸움등에서 여성농민의 투쟁적 진출---여농조직화 필요

-1989.3. 전국 여성농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1989.12. 전국여성농민위원회 결성

-1990.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개칭

1990-1992; 농업·농민문제의 모순의 담지자로 농민문제 해결의 주체화가 주과제가 되고 부분적으로 여농의 고유 과제로 탁아, 건강, 모성보호등 여농대중 실생활과 밀접한 작은 일상 과제 실천(농운에 열심히 복무)

1993- ; 전여농의 중점 사업 방향으로 여농 주체적 관점의 여농개혁안을 마련하고 여농 고유 영역에 대한 대안의 수립과 실천의 과정으로 들어섬

** 현재 7개도에 여농조직이 결성되어 있고 2개도는 미조직 상태이지만 활동가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중에 있음

2)여성농민운동의 과제---조직의 강화와 활동의 변화로

ㄱ)대중조직체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ㄴ)여농대중이 여농운에 대한 확고한 사상성을 갖도록 끊임없는 교양과 실천으로 여농대중의 자주성 고양과 동의력을 높여내며

ㄷ)여농 대중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따른 과제발굴과 실현방도를 내오도록 해야할것

****농촌활동의 지침****

1.준비활동(점검합시다)

1)주체를 꾸렸는가--역량있는 학번의 역량있는 사람인가

준비없이 막연히 여농의 삶을 바라보다 오지 않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주체의 계획에 의한 교양과 토론등으로 스스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 주체의마련과 주체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여농을 단지 돕기 위한 활동이 아닌 여학생운동 조직의 강화에 성과를 내올 수 있어야 함.

2)농활에 필요한 학습은 하였는가

;여농현실에 대한 학습,농업·농민문제의 본질 및 농운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기초학습

3)팀별 '95 여농활동에 대한 총화-계승성을 갖자

작년 농활 분반장·분반원들과 올해 분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활동에 대한 경험교류

4)기능의 습득

- 문화활동에 필요한 민요,노가바,풍물,요가등 준비
- 작년에 배웠던 노래와 놀이를 파악하고 새로운 것 준비

5)답사활동-여농의 주체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여농반에 필요한 기초지식

- 마을 여농의 숫자,연령대,문맹율,자녀수등
- 여농 주요노동과 일거리,일과표
- 갈모이는 그룹과 장소
- 부녀회 여농회 활동여부
- 예전농활 경험등

6)목표와 활동 내용은 현실적인가

현실적으로 잡되 여농반 활동의 사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7)후속활동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2.본활동(여성농민반 활동에 대하여)

농환에서 여성농민반 운영은 여성농민과 학생이 연대하는 장이다.

여성농민운동의 역량과 학생 모두가 서로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적 성과를 작으나마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조직적 관점을 가지고 연대하는 장이다.

1) 여성농민반 명칭의 의미와 중요성

ㄱ) 명칭의 의미

부녀반으로 명명되어왔던 '89.년 이후 여농의 계급성과 자주적 진출에 주목하면서 여성농민과 학생들이 만나는 여농반 활동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여성농민반으로 개칭

ㄴ) 중요성

- 농활기간중 가장 빈번히 만나는 사람
- 학생들에게 가장 호의적으로, 어머니의 품성으로 대함
- 모임, 행사에 적극적이므로 세심한 준비 필요
- 여농이 여성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하는 조직의 주인이며 대상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원내기 위해 조직화 필요

2) 활동 방향

-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인식하여 운동지향
- 농.학의 적극적이고 주체적 참여
- 농업.농민의 역사적 구조적 모순 극복을 위한 노력
- 학생의 신분적 한계 극복 노력 필요

3) 일정표에 따른 활동

- 분반활동의 주체가 없으면 일이라도 열심히
- 다음주민 호응이 없으면 전체모임 1-2회로 호별방문에 중점
- 매일모여도 프로그램 진행 어려우면 놀이만 진행
- 친한분을 만들도록 하고 근로때마다 마주칠때마다 모임을 알리도록 하자.

4) 근로시 대화

- 여농과 같이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이야기할 기회 만들기
- 아침시간에 근로때 할 대화의 주제논의하고 저녁에 점검

5) 호별 방문

- 목적의식적으로 여농과 대화 노력
- 말문을 트는 용기를 갖자
- 선전 조사 분반활동의 준비 필요

6) 우천시 활동

- 엄마들을 모이시게 하거나 모인곳으로 찾아가기

-우천에 대비한 예비 프로그램 준비

7)분야별 활동

*교육활동-가르치려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
·방법;강연 ,VTR ,전단, 소식지를 통한 교육

5

·내용;여성농민문제,여성농민운동, 쌀,교육문제(학교운영위원회),건강,의보등

*선전활동-농활에 대한 여농의 관심을 높여내고 현정세,농업·농민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방법;대자보,마을방송,호별방문,소식지등

·내용;교육내용과 동일

*조사-여성농민조직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마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와 조직활동의 출발점이 된다.

·방법;

집단적으로할 경우 여성농민은 문서작성에 익숙하지 않다.조사 내용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여농주체와 학생주체가 정리하도록 하자

호별방문시대화속에서 작성하고 이후 정리

·내용;마을의 상황 파악,부녀회등 모임조사등

*문화활동;농민·학생이 서로의 생활적 정서적 차이를 놀이와 노래로 극복하고 보다 진솔하고 소박한 민족적 농민적 정서를 함께느낄수 있는 활동

·방법;마을 단합대회,마을 잔치,문선대 공연

·내용;마을상황에 따라 정한다.

7)평가

-분반활동에 대한 평가와 일지 작성

3.후속활동

-여농주체와의 후속활동;공동평가와 후속활동

-마을대중과의 후속활동;편지,연락하기

-학생,여농주체의 후속활동;여농반 보고대회

여농문제에 대한 간담회나 공청회등 행사기획

여학 주체들 여농문제,여농운에 대한 인식 심화

4.생활수칙

1)자세

-안이하고 낭만적인 감상주의적 태도 불식

-농민들을 대상화 시키지 말 것

-조급하고 성급한 태도는 금물

-자체 훈련을 통한 농업.농민 문제/여농문제 숙지

-유연성과 끈기

- 유머감각과 낙관적인 태도
- 농민에 대한 사랑과 신뢰

6

2)생활수칙

- 화려하지 않고 활동과 세탁이 간편한 옷과 신발 준비
- 단정한 머리
- 식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음식이 남지 않도록 준비하고, 시작과 끝은 모두 함께
- 술은 마시지 않을수 있으면 좋고 마실 경우 취하지 않도록 주의/담배 주의
- 주변정리 잘하기.특히 농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특히 정리정돈 잘할것
- 인사잘하기/존대말 쓰기
- 남·녀 관계 주의
- 농민들의 생활 방식과 수준에 맞추도록 하자
- 책임자의 지시에 잘따르도록 하고 대원들끼리 모였을 때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도록 하자
- **여학우는 특히
- 생리대 깨끗이 처리 / 노출에 주의 / 화장.드라이등 멋내지 않도록 하자

4.정읍여농은

- '89.여성농민회 준비위 구성
- '91.여성농민회로 개칭
- 형식적으로는 군농 산하 조직이지만 사업,재정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자주적 여성농민조직
- 조직현황-4개면에 조직이 있고 5개면에 회원 산재(15개 면중 9개면에 여농회원 있음)
- 조직구조는 회장,부회장 2,총무,정책실,교육,선전,재정부를 두고 있음
- 활동은 정기적인 교육과 선전 사업,재정사업을 함
- 타군에 비해 활동가 층이 두텁고 활동내용이 실속있음

3

2. 97년 농활 이렇게 합시다.

지난 10년여 동안 농활을 수행하면서 여성농민들은 열심히 농활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직적 성과는 노력에 비해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제 농활의 경험이 쌓이면서 관성적으로 농활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97년 농활이 조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1)준비활동

① 우리지역의 조직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농환을 준비한다.

- 조직이 있는 곳은 조직의 활동력을 높여내는 계기로 삼는다.
- 조직활동이 침체된 지역이라면 농환을 계기로 조직의 활동력을 살려내자.
- 미조직 지역이라면 활동가가 농환을 통해서 조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활동가능한 사람들을 조직해 내자.

② 군농학연추에 주인으로 참여하자.

농환은 군단위로 준비되고 수행이 됩니다.군농의 농환 준비회의에 참여하여, 여농의 농환 준비 상황 및 농환에서의 활동계획,마을배치등을 설명하고 군농과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농환을 수행해야 한다.이는 군농·여농 모두 농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또한 군농학연추에 참여하여 당당한 농민운동의 한주역으로서 여성농민의 요구를 관철해 내야 한다.

- 마을배치와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여농조직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여농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 선전사업(군단위 신문발행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농관련 부분(여농운과 과세,여농활동내용,여농조직현황,여농반운영등)이 내용으로 담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선전사업의 담당자(여농,군농,학생)들이 함께 계획을 수립·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농환 발대식,해단식을 비롯한 모든 집회에 여농이 발언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치하도록 요구하자.

③ 농활시 집중지역을 선정하자.

- 농활이 배치되는 마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자.

조사방법은 직접조사, 그지역에 사는 활동가(군농,여농)로부터 마을 상황에 대해 기초지식을 얻는 방법,학생들의 답사결과를 수렴하는 방법,지난해 평가를 통한 방법등이 있다.

- 농활이 수행되는 모든 마을을 모두 교양하거나 순회 할 수는 없다.가장먼저 조직 할 수 있는 곳,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하자.
- 미조직지역이나 활동가가 적은지역의 경우 1-2개면에 집중하여 조직의 맹아를 싹틔울 수 있도록 하자.

④ 학생들의 사전 교양 및 교육활동

- 학생들에게 요구할 것

'학교 책임자와 여성농민반 주체를 꼭 꾸리고,여성농민반 분반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도록 요구하자.특히 한번 주체를 맡은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요구하자.

'농활학교에서 여성농민의 현실과 자주적 여성농민운동,분반 활동에 대한 교양시간을 갖도록 요구하자.

'농활이 단정되지 않고 계승성을 갖도록 요구하자.(농활사업 전반에 대한 문건화 요구)

- 학생들의 사전교양 및 그 방법

'사전 교양은 각급단위 농학연추위에서부터 각학교 농활학교를 통해 진행한다.

'주체들에 대한 교양 : 군여농 농활 준비 수련회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교양 : 농활학교에서 여성농민운동과 여농반 분반 활동에 대해서 교양한다.

농활학교를 준비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 여농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의 간담회등을 마련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교양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자.

·교양의 내용 : 여성농민의 현실과 여성농민운동론/97년 농활에서 여농의 중점과제/분반활동/지역의 조직 현황 및 과제,활등시 주의사항등

⑤활동가들의 사전 교육 및 농활 때 교육 선전의 준비

-도단위 : 농활 준비를 위한 수련회를 마련하여 농활의 목표,활동 내용등을 공유하고 각 군의 준비상황을 교류 하자.군조직이 없는 경우 도단위에서 강사개발 훈련을 조직하자.

-군단위 : 강사개발 교육을 통해 마을 교육을 준비(교육내용,교육지역을 선정)하고 농활 전반에 대한 활동 내용의 점검과 마을 교육 계획,선전 계획등을 세우도록 하자.

**강사개발교육

·중점과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모범강의를 듣는다.

·강의 요령과 강의안 작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강의와 강의안 작성 경험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다.

·자료를 참조하여 각자가 자기 나름의 강의안을 작성 한다.(타인이 만들어 놓은 강의안으로는 강의가 어렵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창의성을 발휘해 보자.

·자기가 작성한 강의안을 가지고 5-10분간씩 강의 실습을 한다.

·서로의 장·단점의 지적해준다.

·마을교육 팀을 꾸리고 역할 분담을 한다.

2)본활동

①마을교육

-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얻는다.
- 교육전에 여농반 주체와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 교육강의안을 준비해 갔더라도 마을 상황에 맞게 교육내용을 조절한다.
- 교육 마무리에 연락 통로를 확보하고 반응이 좋은 경우 이후 모임을 유도한다
- 교육후 학생들과 평가를 통해 다음 교육에 참고한다.
- 교육후 교육평가서를 작성하여 이후 후속활동이나 다음 농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도는 미조직군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을 한다.

②선전활동

- 선전물의 준비 : 지역 여농을 알리는 소식지나 집중해야할 과제에 대한 진단을 준비한다.
- 농활신문에 고정적인 여농란을 확보하고 내용을 기획하여 신는다.
- 집회등이 잡혀 있을 경우 마을 방송이나 가두 방송을 하고 집회에서 여농을 알려낼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한다.

③조사활동

- 보건소 이용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어나간다.

④마을 순방활동 및 농활 진행 상황의 파악

- 군여농의 책임자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마을에 대한 순방과 농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파악하여 지원이나 대책을 마련 한다.